

“저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속뜻이 무엇일까요?”

소신공양

운무가 윙글임을 하며 강으로부터 올라와 시냇물의 허리를 감돌아 흐른다. 충분히 퍼지는 아침 햇살에 숲은 두런거리고 키 낮은 등골레 덩쿨의 잎새들은 큰 나무 사이에서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고 있다. 아침 산책길은 늘 향기가 난다. 식물들이 잠에서 깨어나 저마다 아릿한 향기와 소리들을 토해 내는 것이다. 문수 스님은 싱그러운 공기를 맡것 마실 땅으로 심호흡을 하였다. 사분사분 옮겨 놓는 스님의 발자국에서 작은 돌맹이 하나가 포르르 구른다. 아주 작은 돌맹이는 “나도 여기 있어요!”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것 같다. 스님은 고개를 돌려서 돌맹이가 구르다가 멈추는 것까지 보아졌다. “안녕, 좋은 곳으로 이사 했네요!” 스님은 구부러진 깊숙 시냇대 밑에 안착한 돌맹이에 게 다정한 시선으로 인사를 한다. 문수 스님은 자연 한 자락을 볼 때마다 부처님 품안에서 노니는 행복감에 자신도 모르게 출가사를 읊조리곤 했다.

“곳곳이 총망이요, 쌓인 것이 밭이오니 대장부 어디간들 밭 세 그릇 걱정하라. 오호와 사해에서 자유로운 손님되어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대로 노닐세라!”

반시각쯤 걸어 오르면 소나무 한그루가 넉넉한 가지들 뻗어 늘름하게 서 있는 날바위에 닿는다. 날바위 위에서 멀리 보이는 강줄기의 유유했던 흐름을 바라보는 것이 스님의 취미이다. 어떤 때는 소나무 그늘에 들어가 소나무 가지가 드리워 멋진 구도를 만들어 준 허공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한다. 소나무 그늘에서 소나무의 굴곡 많은 등걸을 어루만지며 함께 늙어가는 동지애를 느끼는 때도 있지만 스님은 곧 그 생각을 거두곤 했다. 자신은 생의 길이에 있어서 소나무에 어렵지 않은 시점에서 언젠가는 몸을 바꿔야 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산과 강과 들에는 한 해살이서부터 여러해살이, 수 십해 살이, 수 백해 살이, 아니 수 만해 살이까지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 있다. 산과 강과 들에는 물론 바닷장 자체도 저마다 생명의 길이를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깊이 흐르며 존재하고 있다. 유유했던 것들은 보다 유장한 것에 기대서 살고 있다. 산과 강과 허공이 못 생명들에게 편안한 것은 아마도 저들의 유장함에 저마다 기대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수 스님은 늘 선전을 고마워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기적 소음이 들리더니 강자락이 허열계 속살을 드러내었다. 날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면 평화로운 광경은 토목공사 차량들의 분주한 오감으로 여지없이 깨어지고 있었다. 강가에 푸르던 초원도 군데군데 끊어지고 한쪽으로는 모래언덕이 산처럼 쌓이고 있었다. 산책에서 돌아 온 스님은 아래 절로 향하였다. 스님은 도반이 주지로 있는 절에 딸린 토굴에 있으면서 아침공양과 사시공양을 절로 내려가서 하였다. 스님은 벌써 1년 가까이 오후복식을 하고 있었다.

잔뜩 못마땅한 표정의 두 스님은 곧 말이 없다. 환경단체들과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은 4대강을 파헤쳐서 운하를 만들면 우리나라의 젓줄인 4대강은 병들고 물의 흐름은 오히려 느려져서 물은 곧 썩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자연은 자연대로 흐르게 될 일이고 인간이 지나치게 간섭해서 강줄기를 합부로 끊고 억지로 있는 것은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와 속 깊은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빠른 시간안에 반드시 4대강을 요점을 내야 할 듯이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집요하게 강을 파헤치고 있다. 문수 스님은 토굴로 돌아와 거대한 정좌하고 앉았다. 앞마당 화단에는 모란꽃잎이 함박만하게 피어나고 산새들이 쪼르르 소리를 내며 목련나무에 날아들고 있었다. 문수 스님은 이 모든 움직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면밀히 듣고 있으면서 입념삼매에 들었다. 드디어 강바닥을 파헤치는 굴삭기의 소음이 들리면서 건너 산허리를 뚫고 스님의 좌복까지 들려오고 있었다. 스님은 일어나 가사를 오른쪽 어깨에 두르고 토굴앞에 모신 불상을 향해 묵탁을 들고 염불을 시작했다. 의상 대사의 법석게였다.

“법성원용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비어경법성圓融無異相 諸法不動本來寂 無

받은 한 정권이 자손만대 길이 보존되어야 할 조국의 강산을 합부로 유린하는데 분개하고 있었다. 파과는 순간이지만 복구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문수 스님은 정부의 4대강 만행을 목과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에 점점 몸서리치고 있었다. 못 별이 쏟아진 맑고 고요한 밤, 문수 스님은 손전등을 들고 산허리로 난 산책길을 따라 날바위 위로 올라갔다. 적외 속에서 산골짜기는 향기롭고 달빛의 여명으로 모든 존재는 낮의 고통을 잊고 행복해 보였다. 멀리 강을 내려다보니 달빛 속에서 강물은 반짝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강가에서 수달이 사라진지는 오래되었고 공사의 후유증으로 물고기들과 새들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강은 생명이 숨 쉬는 강이 아니라 이미 죽음의 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마음 없는 달빛만이 파헤쳐진 모래더미와 울퉁 패인 강바닥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다. 문득, 밤하늘에 유성 하나가 노오란 금을 그으며 건너편 산등성으로 떨어진다. 순간 문수 스님은 합장을 하고 기도했다. “저 강과 산자락과 못생명의 흐름을 지켜주십시오!” 스님은 간절했다. 하늘과 땅이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한 형제이기에 자연의 이름은 그대로 문수 스님 자신의 이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간절한 기도를 마치고 아가를 드는 문수스님의 눈앞에 갑자기 수많은 겨레혼의 얼굴들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운집해 기도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겨레혼의 주위로는 수많은 물고기와 새들과 크고 작은 동식물들도 애절한 모습으로 읊음 하고 있었다. 환상이었다. 문수 스님은 가슴이 막막했다. 어떻게 이 뜻을 전할까? 겨레의 혼이 모두 나서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 광경을 어떻게 정부와 국민에게 전할까? 문득 문수 스님은 에밀레종이 생각났다. 에밀레종소리를 맑고 깊게 하기 위해 사람의 생명을 소신공양 하였던 생명공양의 의미에 생각이 미쳤다. 문수 스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산전에 합장배례하고 토굴로 돌아왔다. 이미 가장 강력한 언어를 생각해 낸 스님은 다른 사람을 선통할 필요도 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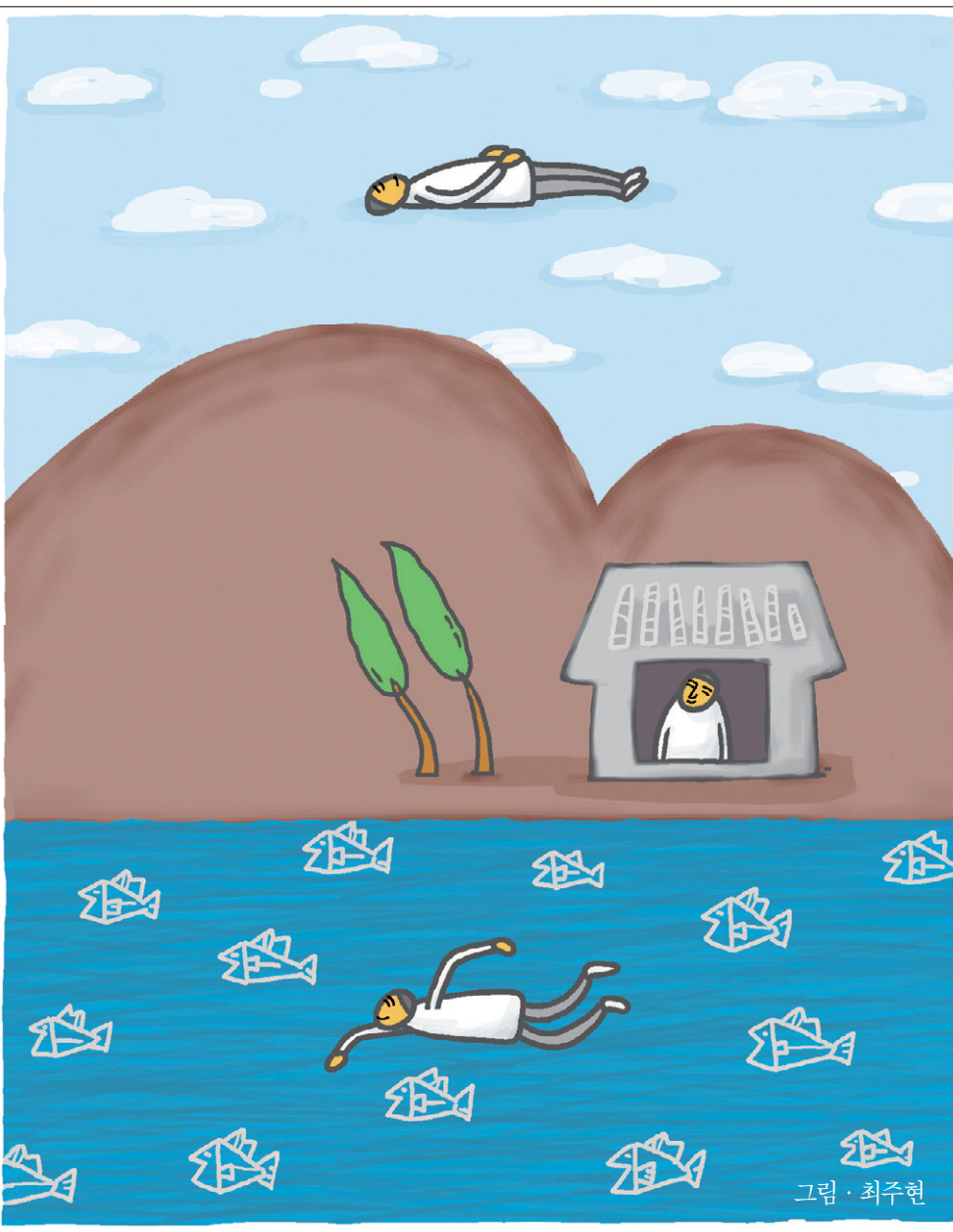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산과 강과 허공이 못생명들에게 편안한 것은 아마도 저들의 유장함에 저마다 기대고 있기 때문일 것...

자신의 생명을 겨레의 혼과 수많은 생명에게 바치기로 마음먹었다.

산하대지와 사람의 행불행과 생사조차도 한 생각에 달려있는 도리를 문수 스님은 일찍이 체득하고 있었다. 다음날 문수 스님은 동네 주유소로 가서 석유 두 통을 샀다. 강이 잘 보이는 한적한 강둑에 석유를 옮겨 놓고 토굴로 돌아왔다. 스님은 토굴을 맡겼던 청소하고 마지막 예불을 올렸다. 그리고는 유서를 썼다.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 못생명을 존중하라, 국민에게 진실하라.” 오로지 행정권을 향한 지극한 충언이요 절규였다. 스님은 유서를 법복 상의 주머니에 넣고는 앞면 좌복 위에 법복을 올려놓았다. 조용히 토굴에서 내려온 스님은 중간에 등각 스님에게 들려 묵묵히 눈인사를 나누었다. 등각 스님은 문수 스님이 평소처럼 포항한다고 생각했다. 그만큼 스님의 표정은 일상과 똑같았고 편안해 보였다. 문수 스님은 강둑에 도착해 가부좌를 하고 앉았다. 스님은 석유통을 들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다. 한 모금 두 모금, 한 되, 두 되... 스님은 마실 수 있는 만큼 석유를 천천히 마셨다. 남은 석유는 몸에 부었다. 정수리를 타고 내리는 석유는 스님이 입은 법복을 적시고 고무신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이름 모를 짐벌 몇 포기나 있을 뿐 다칠 증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스님은 불을 붙이기 전에 자성증생과 앓은 지리의 풀포기와 증생들에게 미안해하며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과 참회진언을 외었다. 행여라도 나의 이 행위에 놀라거나 회색되는 증생이 없도록 미리 오방에 알리고 참회했다. 염불

한 모금 두 모금, 한 되, 두 되... 스님은 마실 수 있는 만큼 석유를 천천히 마셨다. 남은 석유는 몸에 부었다.

소리는 바람결에 조용히 퍼져 나갔다. 문수 스님이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가부좌를 하고 앉은 무릎 아래에 불을 붙였다. 산들바람은 스님의 몸에 불꽃을 한송이 연꽃처럼 이끌어 주었다. 스님은 불길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열기를 느끼면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나의 이 소신공양을 받으시고 겨레의 혼과 조국의 산하와 못생명은 길이 인위하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은 그 다음날에서야 뉴스에 분신자살로 짧막하게 보도됐다. 그러나 유서의 내용은 전국 국민과 정부요로에 전해졌다.

소신공양의 송고한 뜻이 국민들 사이에서 잠시 슬렁거렸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좀 더 효과적이라면 서울시장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어떤 이는 “스님이 목숨을 가버려 했다”고도 했다. 스님의 유체를 수습한 도반 등각 스님의 말에 의하면 스님은 곳곳이 가부좌를

한 채 수인을 하고 있었고 표정은 평화로웠다. 스님의 다비식 후 송골하는 과정에서 24개의 사리와 다수의 치아사리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25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치아가 녹지 않고 사리로나온 것은 신기한 일이라고 했다.

불교계에서는 스님의 소신공양을 기리고 장례를 법다이 치렀으며 유언을 널리 알리었다. 스님의 쇄골은 강 언덕에 뿌려졌다.



영담 스님
정도 보감사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염으로 장엄하였으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범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실물크기(소) 3.5 × 5cm
(중) 5 × 7cm

복상불소영
장량장가
의식식사용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목천주
크기 : 8mm × 10mm × 12mm 55,000원
10mm × 10mm × 12mm 65,000원
12mm × 10mm × 12mm 85,000원
흑단목목염주는 가락이 정형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항로
(대) 26 × 16 × 16cm 155,000원
→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은 마음을 이루어 주며 일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량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앓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원열복대 의료기인증, 의료용전자기발생기 전기능을 안정인증, LIG 배상보험 가입 전차마 장애실험필, 전차마 환경인증 실용안전출원

신안정 의료기기 05-0626 인중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음(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일금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